

내년부터 ‘경북형 공동영농’ 전국으로 확산

2030년까지 100곳 육성 목표
내년 6곳 선정… 1곳 당 20억 투자
사업 첫째, 국비 26억으로 종합지원

경북도가 농업대전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경북형 공동영농’이 내년부터 ‘공동영농 확산 지원’ 국비 공모 사업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가 내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영농 확산지원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2030년까지 공동영농 법인 100곳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 우선 6곳이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이들 6곳에 2년간 한 곳 당 평균 20억원을 투자한다.

사업 첫째인 내년에는 국비 26억원을 투입해 공동영농법인에 교육·컨설팅, 공동영농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경북도가 농업대전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경북형 공동영농’이 내년부터 ‘공동영농 확산 지원’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대된다.

공동영농 20ha 이상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법인이 사업 대상이다.

쌀을 제외한 두류·서류 등 식량작물, 과수, 조식료 등 모든 품목을 지원한다.

경북에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영농법인은 시군을 거쳐 경북도에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사업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7일까지 농식품부로 추천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다음 달 말쯤 선정된다.

선정된 법인은 임대형, 혼합형(농작

업수탁+농지임대), 출자형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로 육성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과 함께 농지 임대절차 간소화, 직불금 수령 요건 완화, 세제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경북형 공동영농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적합한 신규 지구를 발굴해 국비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북형 공동영농’은 문경 영순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내 23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주는 주주가 되는 ‘주주형 2모작 공동영농’이 핵심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의 도전이 대한민국 농업의 틀을 바꾸고 있다”며 “고령화, 정체된 농업소득, 낮은 곡물 자급률 등 농업·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농업대전환을 더 빠르게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

‘청소년상상페스티벌’ 운영

광주에서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볼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진다. 광주시는 25일 5·18민주광장에서 ‘2025 광주청소년상상페스티벌’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주도형 문화축제로 불거리, 즐길거리, 체험활동이 어우러져 펼쳐진다.

행사장 곳곳에는 디지털플레이존, 인공지능(AI) 아트체험, 열쇠고리(키링) 만들기 등 25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16개의 지역 청소년기관이 참여한다.

또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뮤지컬·태권도 특별공연, 청소년 밴드 버스킹, 플래시몹 등 다양한 무대가 청소년과 시민들을 맞이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안동시

안동호 차량도선 운항 재개

경북 안동시 안동호 상류 지역 차량도선 운항이 22일부터 재개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가을 장맛비로 안동호 수위가 148m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결정됐다.

운항을 재개하는 선박은 경북 제705호이다. 도산면 동부리에서 예안면 부포리를 운행하는 차량도선이다.

이번 안동호 수위 회복으로 차량도선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안동호 상류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상반기 가뭄으로 중단됐던 도산면 동부리~예안면 부포리 간 차량도선 운항을 안동호 수위 상승에 따라 즉시 재개한다”고 말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대구시

李 대통령, 타운홀 미팅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구광역시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이 대통령이 ‘지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는 것은 6월 25일 광주, 7월 4일 대전, 7월 25일 부산, 9월 12일 강원도에 이어 다섯 번째다.

타운홀 미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 대통령에게 지역 발전 방안을 직접 건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 로봇수도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까지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적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여수시

‘혼밥식당’ 46곳 선정

전남 여수시가 1인 가구와 1인 여행객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혼밥식당’ 46곳을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혼밥식당 선정은 혼자 식사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여수의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8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과 현장 발굴을 병행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46곳을 선정했다.

/여수(전남)=양수영 기자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예산협의 가능성

광주시, 시비 부담액 감축 추진

광주시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공사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의 총예산에 협의 가능성 언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시비 부담액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에게 ‘호남고속도로 광주구간 확장 공사 정부 부담액 확정’을 제안했다.

함 시장은 “방음터널 비용 분담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확장 사업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정부와 광주시 예산 비율에 대해 재협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광주시는 시비 부담액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국토부) 등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포항시 유희공간, 문화의 장으로 재탄생

오는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다시, 육거리 RE:CROSSING’

포항시는 육거리 중앙상가 일원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지역 상권과 대학이 함께하는 지역 공간 재 활성화와 공공프로젝트 ‘다시, 육거리 RE:CROSSING’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간 주도형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로, 구도심의 유희공간을 문화예술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시민과 청년,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형 문화의 장을 조성한다.

중앙상가 내 빈 점포 22곳은 전시·체험·공연 공간으로 변신한다.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건축학과 학생들의 졸업 전시를 비롯해 지역 청년 밴드 공연, 예술인 협업 프로그램 등으

로 채웠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건축학과 졸업작품전(16개소) ▲IT프로젝트 전시(2개소) ▲‘색다른 시선’ 특별전(1개소) ▲국제세미나(1개소) ▲헤리티지문화전시전(1개소) ▲육거리 역사전시관(1개소) 등이 마련된다.

행사 기간 동안 중앙상가상인회는 참여 학생들에게 음식점과 카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포항시는 ‘중앙상가 가을 야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포럼’을 함께 열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해 ▲빈 점포 임대사업 ▲영일만친구 야시장 ▲청년창업가팝업스토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공공화장실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북도, 736억 규모 연구인재 양성

‘K-탐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추진
전국 우수인재, 경북으로 유치·성장

경북도는 지난 20일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국제관에서 ‘K-탐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추진 발표회를 열고, 경북형 최고급 연구 인재 양성에 나선다.

지난 9월 선발된 1기 장학생은 총 18명으로, 포항공과대학교 과학기술 인재 15명과 국립경북대학교 한류 인재 3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박사과정 8명, 석·박사 통합과정 10명이며, 수도권 및 타 지역 출신이 1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대부분 서울 주요 대학과 KAIST 등 국내 최상위권 대학 출신으로, 앞으로 경북의 연구기관과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간다.

‘K-탐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736억원 규모로 향후 9년간 추진된다. 전국의 우수 인재를 경북으로 유치해 성장시키고, 지역 내 취업과 창업으로 정주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경북도는 단순한 장학 지원을 넘어 ▲국내외 인재 유치 ▲지역 정주 기반 마련 ▲지역 취·창업 연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 박사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에게는 최대 5년간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수혜 학생은 지원 기간에 상응하는 최대 3년 동안 경북 내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주해야 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

14개 구역 3만2000호 신청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른 특별정비에정구역 1단계(화명·금곡, 해운대1·2)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접수 결과 해당 지역 총 27개 구역 중 14개 구역 3만2000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화명·금곡 구역은 공모대상 14개 구역 중 6개 구역 1만4000호가 공모신청서를 제출했고 해운대1·2 구역은 공모대상 13개 구역 중 8개 구역 1만8000호가 공모신청서 제출했다.

선도지구 공모 신청 규모는 선정 물량 대비 평균 5.7배 수준이며, 주민 평균 동의율은 77퍼센트(%) 수준으로 집

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화명·금곡 구역은 신청 규모는 선정 물량(2500)호 대비 약 5.7배인 총 1만4400호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74%, 해운대1·2 구역은 선정 물량 3200호 대비 약 5.63배인 총 1만800호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80% 수준이다.

시는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10~11월 신청서를 평가하고 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2월 중 선도지구 최종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우선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